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부모, 학부모가 되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1학년 학부모님께

한참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놀이 중심의 유치원과 달리 배워야 할 교육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적응을 위해 아이들도 긴장하고 노력하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는 부모님의 그러한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작한 자료입니다. 이 책은 1학년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단순한 학교생활 안내를 넘어서 학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의 하루 학교생활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 배움, 건강 영역별로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서 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겪는 전반적인 교육 영역으로 학습권과 교권, 인성교육, 안전교육 부분을 Q&A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참고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부모)로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한층 더 시너지 효과를 내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며, 교육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의 교육 동반자이자 삶의 멘토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01 1학년의 하루 생활 알아보기

1. 학교에 등교해요 ····· 07
2.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요 ····· 09
3.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 11
4.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 13
5. 안전하게 하교해요 ····· 14

02 1학년으로 자라나기

1. 함께 어울리며 자라요 ····· 17
   - 1학년 어린이의 발달 특성 이해하기
   - 놀이하며 자라는 어린이
   - 감정 표현으로 마음을 돌보는 어린이
   -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어린이
2. 차근차근 배우며 자라요 ····· 27
   - 또박또박 한글 공부
   - 기초부터 튼튼하게 수학 공부
   -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독서 습관
   - 진단부터 지원까지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 읽기 어려움, 난독증
3.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요 ····· 35
   - 몸 튼튼 학생 건강검사
   - 마음 튼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1) – 새학기 증후군
   -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2) – 아동 우울증
   -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3) – ADHD

03 1학년 학부모로 거듭나기

1학년 학부모로 거듭나기 ····· 45
   -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참여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교설명회
   - 모든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부모회
   - 부모됨을 함께 배우는 학부모교육
   - 학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 자녀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상담

Ⅱ.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01 함께 지키는 학습권과 교권

1. 행복한 학교, 학생의 다양한 학습권 보장 ····· 53
- 통합교육
- 특수교육
- 다양성 이해교육

2.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교육활동 보호 ····· 57
- 교육활동 침해 예방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02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1.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 63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학교폭력 예방
-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성폭력 예방
- 디지털 성범죄 예방

2.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요 ····· 70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 아동학대 신고 의무

3. 안전한 학교생활을 해요 ····· 73
- 학교안전교육
- 학교안전공제

I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1 1학년의 하루 생활 알아보기 07
2 1학년으로 자라나기 17
3 1학년 학부모로 거듭나기 45



01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1학년의 하루 생활 알아보기



1 학교에 등교해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초등학교는 약 8시 40분 ~ 9시에 등교를 합니다. 늦어도 수업 시작 5~10분 전에는 교실에 도착하여 하루 일과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에 도착하면 이렇게 해요

책가방, 겉옷 등 개인 물건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 책가방을 닫아 책상 옆 고리에 걸어둡니다. 겉옷은 떨어지지 않게 의자에 잘 걸어두거나 접어서 사물함 등에 넣어둡니다.

시간표를 보고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 교과서는 학교 서랍이나 사물함에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교과서와 필통 등을 미리 꺼내 놓습니다. 제출할 것이 있다면 정해진 곳에 제출합니다.

책 읽기 등 아침 활동을 합니다.

-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독서 등 아침 활동을 합니다. 아침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읽을 수 있도록 1~2권의 동화책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세요.

- 아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오고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안전상 주의해야 할 곳을 꼭 짚어줍니다. 등굣길에는 오늘 하루 일과나 긍정적인 소재의 대화, 격려의 말을 나누며 좋은 기분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시켜 주세요.

- 신발과 실내화를 신고 벗기, 겉옷 입고 벗기, 우산 접고 펴기, 용변 뒤처리하기 등을 충분히 익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른들이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해감에 따라 부모님이 가방을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가방을 챙길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매일 알림장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 입학 후 매일 알림장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물건(필통, 물병 등)을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방을 살펴봐 주세요.

결석이나 지각을 하게 될 상황이라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 아이의 등하교 시간이 평소와 달라질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정해진 방법을 통해 연락합니다. 예정된 일정이라면 최소 1일 전에, 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1교시 수업이 시작하기 전(8시 40분~9시)에 꼭 연락합니다.
  결석·지각·조퇴 등 출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양식의 출결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출결 서류 양식 및 제출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차로 아이를 교문 앞에 데려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 아니요. 자녀가 스스로 등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기준 300m 이내의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많은 학생 및 주변 차량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등교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급적 부모님 차량으로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초등학교에서의 '출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업일수'란 학교장이 정한 '학생이 1년 중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합니다. 대개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1년 중 190일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므로, 학생의 출석일수가 해당 학교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지금 학년을 수료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결석하거나, 지각, 조퇴, 결과 등 출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각각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생활기록부에 입력합니다.

결석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❶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 결석계+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은 결석계+증명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
	❷ 미인정 결석	출석정지, 태만,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하거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❸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에 출석한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Q&A

Q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이 있나요?

A :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경조사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승인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출결처리

❶ 기간 및 횟수 : 연간 20일 이내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❷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❸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 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관련 규정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은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1교시에 40분입니다. 1학년은 매일 4교시~5교시 수업을 합니다. 학교마다 수업 시간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종류에 따라 1~2교시를 묶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공부해요

학교 및 수업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초등학교 1학년은 등교,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하교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학교에서의 하루, 한 학기, 일 년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또한 학습을 하는 기초적인 방법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혀 습관화합니다.

교과서, 조작, 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합니다.

-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과서뿐만 아니라 동화책 연계, 구체물 활용 및 조작, 놀이 및 신체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합니다. 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움에 적응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한 기본 자세와 습관을 길러주세요.

- 자신의 책상과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갑니다. 또한 책상 위에 책과 필통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학습 전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은 아이의 집중이 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집에 있는 동화책 등을 활용하여 놀이처럼 '몇 쪽'을 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숫자가 크면 '36쪽, 3, 6'과 같이 '몇십 몇 쪽, 몇, 몇'처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큰 소리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통 능력을 길러주세요.

- 매일 꾸준히 동화책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알면 학습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 놀이나 보드게임 등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말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교과서	1학기	2학기
국어	• 국어1-1(가), 국어1-1(나) • 국어활동1-1	• 국어1-2(가), 국어1-2(나) • 국어활동1-2
수학	• 수학 1-1 • 수학익힘 1-1	• 수학 1-2 • 수학익힘 1-2
통합교과	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을 주제에 따라 통합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	하루, 약속, 상상, 이야기

-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시간입니다. '입학식, 방학식' 등의 행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의 인성교육, '교통안전교육, 화재대비훈련' 등의 안전교육, '현충일, 한글날' 등의 계기교육, '독서교육, 디지털교육, 음악·미술·체육활동' 등의 학교 및 학급 특색활동, 진로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Q&A

Q : 교과서를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개별적으로 구매합니다.

초등학교에는 해당 학교 학생 수에 맞게 교과서가 보급되므로 추가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분실한 경우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은 약 10분이지만 쉬는 시간의 운영 방법은 학교와 교사마다 다양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쉬는 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 쉬는 시간에는 이전 수업에 사용한 교과서 등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에 이런 활동이나 놀이를 합니다.

- 1학년 아이들은 독서,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색종이 접기, 보드게임, 친구와의 대화나 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단, 학급마다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나 범위가 다르므로 학기 초 담임선생님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쉬는 시간에 이런 행동은 안됩니다.

- 교실 및 복도에서 뛰어 다니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밀기, 던지기 등), 교실 밖으로 나가서 노는 행동 등 위험한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노는 것은 대부분의 교실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난감 칼, 인형 등 수업 활동과 관련 없는 물건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1. 학교생활 및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와의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3. 자랑하거나 부러워하는 등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고장이 나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Q&A

Q : 아이가 쉬는 시간에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A : 꼭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전 시간에 사용한 것 스스로 정리하기, 다음 수업 미리 준비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등 쉬는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아이의 필통 등 잘 보이는 곳에 '스스로 해보기' 표를 붙여 실천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등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도구 등을 챙겨주시거나 '하루 1명 친구 관찰하기' 등 아이와 부모만의 미션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Q : 아이가 '난 친구가 없어, 놀 사람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외톨이일까요?

A : 아이의 말이 지속되는지, 하교할 때 표정은 어떤지 등을 살펴주세요.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과정과 속도는 다릅니다. 먼저 다가가는 아이도 있고, 친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아이도 있습니다. 특히 입학 후 3월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고 관계를 맺을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해 알게 되고 어울리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여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명이 어울려 놀기도 합니다. 또 1학년 아이들은 '단짝 친구'보다는 '그날의 기분과 하고 싶은 놀이'에 따라 노는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 친구와 어울려 놀았음에도 자신이 놀고 싶은 친구랑 놀지 못하면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난 친구가 없어.'라는 말이 일회성인지, 지속되는지를 살핍니다. 기분이 표정에 잘 드러나는 나이이므로 아이의 표정을 살피는 것도 마음을 알아보기 좋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들어선 아이들은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여러 갈등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이겨 내다보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부모는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네 곁에는 우리가 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황이 계속된다면 담임선생님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줍니다.

Q : 아이가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만 갈 수 있을까요?

A :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지만, 급하다면 수업 시간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학급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단,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올 동안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한 명을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놀다가 화장실을 가지 않고 수업 시간에 가거나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다녀오고 정말 급한 경우만 수업 시간에 가도록' 가정에서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급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의 화장실 처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용변을 볼 때 스스로 벗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착용하고, 용변 후 뒤처리 방법을 입학 전에 충분히 알려줍니다.

4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초등학교에서는 3~5교시 수업 후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은 교실에서 먹기도 하고 급식실로 이동하여 먹기도 합니다.

1학년 아이들이 점심 먹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교실 또는 급식실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점심을 먹습니다.

- 손을 깨끗이 씻고 차례대로 점심을 받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은 후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남은 음식과 식판을 정리합니다.
- 초등학교 급식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물병은 개인이 준비합니다. 대부분 학교에 정수기와 음수대가 있으므로 물을 다 마시거나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를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초등학교는 교사가 급식 배식부터 정리까지 지도하고 교사 1명 당 학생 수가 많으므로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먹여주거나 기호에 맞게 음식을 잘라주는 것 등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식사 시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입학 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익힙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개인 수저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편식하여 먹지 않고 버티거나 너무 천천히 먹는 경우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싫어하는 음식도 한 번은 먹어보기, 먹는 속도 조절하기 등을 연습합니다.

급식실에서 급식을 한다면 물병을 담을 물병 가방을 준비해 주세요.

- 1학년 아이들이 식판과 물통을 함께 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급식실에서 급식을 한다면 물병을 물병 가방에 넣거나 끈을 연결하여 물병을 손목이나 어깨에 멜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아이들이 물병을 자주 떨어뜨리므로 플라스틱보다 단단한 재질이 좋습니다.

Q&A

Q : 아이가 못 먹는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 밥 먹는 것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A : 초등학교에서는 골고루 먹도록 영양교육을 하고 있지만 강제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음식이나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음식이 있다면 입학 후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가정에서도 식단표를 꼭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아이가 개인의 기호로 먹지 않거나 편식하는 경우 먹어보도록 권할 순 있지만 강제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은 먹어보자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안전하게 하교해요

초등학교 1학년은 4~5교시 수업을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4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약 12시 30분~13시, 5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약 13시 40분~14시에 하교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하교 시간과 방법을 알아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표 (예시, 학교마다 다름)					
	월	화	수	목	금
1~4교시 (쉬는 시간 포함)	9:00 ~ 12:10	9:00 ~ 12:10	9:00 ~ 12:10	9:00 ~ 12:10	9:00 ~ 12:10
점심시간	12:10 ~ 13:00	12:10 ~ 13:00	12:10 ~ 점심 식사 후 하교	12:10 ~ 13:00	12:10 ~ 점심 식사 후 하교
5교시	13:00 ~ 13:40	13:00 ~ 13:40		13:00 ~ 13:40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일주일에 5교시 수업 3번, 4교시 수업 2번을 합니다.

- 4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수업 후 점심을 먹고 하교합니다. 점심을 먹는 속도에 따라 아이의 하교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12시 20분~13시에 하교합니다.
- 5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5교시 수업을 마치면 하교하므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 13시 30분~13시 50분에 하교합니다.
- 학교마다 수업 시간 운영 방법이 다르고, 1학년은 입학 후 적응 기간 운영 방법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 학기에 우리 학교 '수업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부모님(보호자) 동반 또는 혼자 이동, 늘봄학교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교합니다.

-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에게 '학교'는 크고 낯선 곳입니다. 매일 정해진 곳으로 하교를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3~4월에는 등교할 때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오늘 어디에서 무슨 수업을 듣는지'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아이가 제대로 인지했는지 반복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하교 시간에 부모님이 아이를 맞이하러 가신다면 예정된 하교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기다립니다.

  만약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과 길이 어긋나거나 아이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땐 무조건 교실로 돌아가도록 평소에 수시로 일러둡니다.

늘봄학교는 무엇일까요?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 및 참여하는 선택형 프로그램과 초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컴퓨터, 과학, 영어, 논술, 미술, 악기, 댄스, 바둑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저학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맞춤형 늘봄(돌봄)교실 등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Q : 부모가 모두 출근을 하여 아이를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데려다 줄 수 없을 땐 어떻게 할까요?

A : 입학 후 일정 기간 동안 담임교사나 담당 강사가 아이들을 인솔합니다.

입학 후 일정 기간 동안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담임교사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돌봄전담사가 인솔하여 해당 교실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별적으로 이동합니다. 대략 2~3주 정도면 아이들 스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가지 못한다면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 1학년 학생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수익자 부담)과 늘봄(돌봄)교실 모두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늘봄(돌봄)교실 입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늘봄(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아이들은 얼마든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돌봄교실로 이동하여 머무르다가 개인이 신청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시간에 맞게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참여합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업이 끝나면 다시 늘봄(돌봄)교실로 이동하여 머무르거나 하교를 하기도 합니다.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02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1학년으로 자라나기

1 함께 어울리며 자라요

1학년 어린이의 발달 특성 이해하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맞이할 환경적 변화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학년 어린이의 발달 특성

신체 감각의 통합적 발달

- 대부분 앞니갈이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이갈이가 시작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 신체 성장이 빨라져 몸 움직임이 활발하나 균형감각과 조절력이 약하여 잘 넘어지고 자기방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 소근육 발달이 현저해지며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림이 많습니다.
- 손과 발의 협응력이 발달하나 리듬감이 아직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 방향 감각과 공간 감각이 원활하지 않아 순간 방향 전환이 쉽지 않으며 길을 잘 잃습니다.

인지적 특성

- 상황을 언어로 표현 가능하나 전체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일상에서 수 개념이 형성되고 추상적인 숫자를 이해하나 활용이 어렵습니다.
-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의 기억에 혼돈이 있습니다.
- 직관적으로 주변을 관찰하며 사실과 상상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물활론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 사고하여 행동하기보다 모방을 통하여 배움이 가능합니다.

정서적·사회적 특성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불안을 느끼고 신체적으로까지 반응합니다.
- 정서의 경과 시간이 짧고 강렬하며 자주 변합니다.
- 자기중심적이고 싸움이 잦습니다.
-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잘 어울립니다.
- 함께 있으나 각자 놀이를 합니다.
-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Q&A

Q : 또래보다 작고 발달이 늦된 우리 아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A : 단순히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발달의 차이가 큽니다. 아동기는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 신체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키나 몸무게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2~3년이 지난 중학년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점차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알고 있는 것인데도 자꾸 물어보는 우리 아이, 왜 그럴까요?

A : 아는 것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은 1학년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것과 알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는 부모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 알고 있잖아.”가 아니라 “이건 이런 거야. 잘 알겠지?” 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이제 우리 ○○이가 ○○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잘 기억할 거야.”라고 해주면 아이는 똑같은 질문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과 더불어 소근육 활동을 해 주세요.

성장기 아이들은 충분한 신체활동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줄넘기, 던지기 등의 대근육을 사용하는 신체활동과 종이접기, 손뼉치기 놀이, 조립하기 등의 소근육 활동을 골고루 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아이와의 비교 말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 주세요.

1학년 어린이들은 “나 잘했죠?”, “나는 이것 못해요.”처럼 말의 앞에 ‘나’라는 말을 붙여 말하는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배움이나 행동이 늦거나 부족하더라도 비교 말고, 노력과 작은 성취 등을 칭찬해 주세요.

놀이하며 자라는 어린이

놀 궁리만 하는 아이, 놀기 좋아하는 아이, 잘 노는 아이.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고, 놀이를 통해 성장합니다. 건강한 성장과 균형 발달을 돕는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이 하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는 문항에 체크(✓)하세요.

- ☐ 놀이가 즐거운 것은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 한 가지 놀이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다.
- ☐ 놀이하는 방법을 어른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
- ☐ 놀이하면서 수학이나 과학적 개념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 ☐ 놀이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1개 이하	☑ 2~3개	☑ 4~5개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Q&A

Q :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A : 아이가 혼자 노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혼자 노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인 경우, 발달 수준이나 놀이 수준의 차이로 또래와의 놀이가 어려운 경우,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의 미숙으로 또래로부터 거부, 소외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보도록 해주기, 함께 노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퍼즐, 책 등)을 치워 주기,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놀며 어울리는 연습하기, 다른 사람들과 놀 때마다 긍정적인 강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Q : 아이와 놀 때마다 싸우게 되는 아빠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A :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경쟁적인 것보다는 협동을 통한 놀이가 적합합니다.

만 8세 전까지는 지는 것을 내면에서 수용하기 힘들고, 경쟁이 지나치게 과도해질 수 있으니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스스로와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데 몰두한 나머지 공정하지 않은 경쟁 상황에 아이를 밀어 넣었을 수도 있으며, "어디 아빠 수준까지 한번 와 봐라" 하는 식으로 대하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놀이를 하는 동안 학습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사심 없이 즐기는 것이 진짜 놀이입니다. 단, 안전하지 않은 경우처럼 필요한 순간에는 약속을 지키도록 알려 주셔야 합니다.

'놀아주기'가 아닌 '함께 놀기'를 해주세요.

부모가 자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놀아주는 것은 강요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기에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불만족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놀이는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하는 순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하여 진심으로 같이 놀이해 주세요.

성장을 돕는 놀이의 특징

저구조성 재료로 하는 놀이

저구조성 재료란 가지고 노는 사람에 따라 재료의 변형이나 놀이 방법이 달라지는 재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 모래, 흙, 물, 헝겊 등이 저구조성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로 놀면 아이는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틀이 없는 놀이

놀이의 규칙이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이가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놀이, 상상놀이, 가상놀이 등이 틀이 없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에 대해 호기심과 의욕을 갖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기는 놀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놀이를 즐기고, 놀이에 대한 칭찬과 격려, 의견과 감정을 공유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놀이, 친구놀이, 동료놀이 등이 함께 즐기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는 놀이의 재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놀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을 쓰는 놀이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능력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놀이, 운동놀이, 리듬놀이 등이 몸을 쓰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는 자신의 몸을 조절하고, 놀이의 반응을 통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으로 마음을 돌보는 어린이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감정도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삶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알람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관리, 표현하는 데 능숙해지면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방법으로 감정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가 났어.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의논하는 중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끝난 후에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대화하거나, 다른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감정은 옳고 그름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화나지 않아도 되며, 단순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정상적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염려도 없고 상대와 연결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해"와 같은 말은 자칫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며, 죄책감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 능력 키우기

다른 사람의 말 경청하기

경청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줍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보기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조절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꼭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나 공감이 힘들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기

친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 볼까요? 과장되게 인사할 필요는 없고 "안녕하세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점 찾기

공통점을 찾으면 공감하기도,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도 더 쉬워집니다.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때는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보면 대화를 이어가기 편해집니다.

Q&A

Q : 무슨 일이 있으면 울음부터 터트리는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A : 평정심을 갖고 아이의 감정을 해석해주세요.

"너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만해!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와 같은 말로 다그치는 것 말고, 아이의 감정을 해석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황당함, 비참함, 아픔, 짜증 등 울음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 옆에서 부모가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이가 직접 하도록 하고, 이러한 연습이 충분해야만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Q :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아이, 왜 그럴까요?

A : 때때로 아이들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해서, 자신으로 인한 상대방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아픔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부모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투는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가해자와 완전한 피해자로 나누는 게 어렵고, 거의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상처받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게 시비를 가리는 일보다 우선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면 누구나 사과할 수 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대화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예상치 못한 자녀의 반응에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갈등이 초래될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중하기 위한 것인지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을 기억하고 있다면 언어 선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세요.

'넌 늘 네 생각만 하지', '너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잖아.'라고 부모의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결론짓지 말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하고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내(부모) 말은 '정답', 네(자녀) 말은 '문제'라는 생각은 그만!

대화는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공감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모의 생각과는 별개로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 그랬구나', '저런, 엄마는 몰랐네',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은 자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세요.

의사 전달을 짧고 간결하게!

지나간 잘못까지 몰아서 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만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어린이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 바로 미디어 사용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기기를 만나고 인터넷을 사용하며 미디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디어를 스스로 잘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식사 예절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과의존, 점검해 볼까요?

자녀용

- ☐ 미디어 기기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다.
- ☐ 식사 시간에도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다.
- ☐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 ☐ 미디어 기기를 하느라 다른 놀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 ☐ 미디어 기기를 자주 사용하면서 시력이나 자세에 문제가 생겼다.
- ☐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보다 영상에 더 관심을 보인다.
- ☐ 하루동안 모든 미디어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면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다.
- ☐ 집에서 가족들과 놀이하는 시간보다 미디어 기기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 ☐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꼭 미디어 기기가 필요하다.

부모님용

- ☐ 미디어 기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수시로 꺼내 본다.
- ☐ 화장실에 갈 때는 꼭 미디어 기기를 가져간다.
- ☐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알림 소리가 들리면 미디어 기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 ☐ 자기 직전까지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다.
- ☐ 눈 뜨자마자 미디어 기기를 확인한다.
- ☐ 외우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이다.
- ☐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
- ☐ 다운로드 받은 앱이 30개 이상이다.
- ☐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미디어 기기를 하는 시간이 많다.

1~2개	3~5개	6개 이상
미디어 사용이 양호한 편입니다.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됩니다.	미디어 과의존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미디어 사용, 잘 시작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 미디어 사용 규칙은 언제, 얼마나,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규칙은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습니다.
- 아이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종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와 대화하며 '잘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고, 걱정에 의해서 뺏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칙이 있음에도 부모의 필요에 의해 규칙을 깨버리고 미디어 사용을 마구 허용하면 아이 또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 또한 규칙이 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다가 부모의 걱정과 불안에 의해 갑자기 혼을 내며 중단시키는 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디어 사용을 시작할 때 규칙을 떠올리는 '질문'을 사용하세요.

- "우리 몇 개를 보는 거지?", "시계가 숫자 몇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라고 질문함으로써 규칙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 "어떤 영상을 볼 거야?",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어떤 놀이를 할 거야?"와 같은 질문을 통해 영상 시청과 이후 계획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 잘 끝내기

잘 끝내는 연습을 부모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아이가 미디어 사용을 잘 끝내는 것에도 충분한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 따라서 처음엔 부모가 다소 힘들더라도 아이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옆에 앉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시점까지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통해 '규칙을 잘 지킨 경험'이 아이에게 쌓이고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아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미디어 사용 중, 아이가 규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몇 개 남았지?", "타이머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와 같은 질문을 한 두 번 해보면 좋습니다.
- 그리고 규칙만큼 사용했을 때 부모가 바로 중단시키기 보다는 아이에게 "OO이가 스스로 꺼보자."라고 먼저 권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종료한다면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미디어 기기에 대한 권한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아무리 규칙이 명확하다고 해도 스마트폰, 태블릿, TV와 같은 기기를 아이가 언제든 만지고 켤 수 있다면 규칙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기기의 버튼을 눌러 켜고 사용을 시작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아이가 부모의 동의와 허락 없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을 해야 합니다.
- 심지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스마트기기가 있다 해도 그 기기의 사용은 반드시 규칙과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잘 끝내기 위해서는 대안활동이 필요합니다.

- "영상 그만 보고 이제 씻자! 숙제하자! 책 읽어!"라고 한다면, 미디어를 끝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거부감이 더해지기에 멈추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 따라서 미디어 사용을 제외하고 아이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이 미디어 사용을 멈추는 것과 짝꿍이 되어 대안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혼자하는 놀이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 등으로 구분하여 그림, 글씨 등으로 적어 붙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다 보고 나서 저기 붙여 놓은 놀이 중에 어떤 것을 할까?"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미디어 사용을 끝내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야외에서 하는 활동
✔ 그림 그리기/만들기	✔ 역할놀이	✔ 놀이터 가기
✔ 식물에게 물주기	✔ 보드게임	✔ 공놀이
✔ 동요 듣기	✔ 아이에게 영상이나 캐릭터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 들어주기	✔ 산책하기
✔ 그림책 보기	✔ 유튜브에 나온 활동 따라하기	✔ 자연물 관찰하고 그리기
✔ 블록놀이하기		

※ 출처: i-누리 홈페이지

Q&A

Q :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문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A : 스마트쉼센터의 상담이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는 전화상담, 내방상담, 가정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 및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전국 대표번호 1599-0075(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8:00)
- 홈페이지 www.iapc.or.kr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의 비밀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와 상호작용이 잘 될수록 아이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 부모에게 협력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기대하는 만큼 정서적인 충족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아이는 미디어가 주는 만족에 더욱 쉽게, 깊이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차근차근 배우며 자라요

또박또박 한글 공부

한글 책임교육

- 한글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 미해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1~2학년 시기에 국어 교과 수업 시간이 늘어났으며 3월부터 한글 문해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은 이렇게 해요

1. 입학 초기에는 말하기·듣기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2. 신체활동, 놀이, 만들기 등의 조작활동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3. 자음과 모음의 소리, 연필 잡는 방법과 같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웁니다.
4. 1학기에는 알림장이나 받아쓰기와 같은 쓰기 중심 활동은 지양합니다.

읽기 유창성

- **읽기 유창성**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유창성입니다. 읽기 유창성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적절한 의미 단위로 띄어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읽기 유창성은 모든 교과 학습의 밑바탕이자 한글 읽기 교육의 최종목표입니다.

- **읽기 유창성이 강조되는 이유**

  글을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은 단어를 해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학생은 글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한국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읽기 유창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읽기 유창성 지도 방법**

  읽기 유창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적절한 난이도의 글을 함께 소리 내어 반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교사 또는 부모님이 들려주는 시범을 듣고 반복해서 따라 읽다 보면 학생 혼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Q&A

Q :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될까요?

A : 꼭 한글을 배워서 입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는 한글 집중교육 기간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듯이 한글을 익히게 되기 때문에 꼭 한글을 배워서 입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글은 친구들과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므로, 한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데 영어 학원을 보내도 될까요?

A : 아이가 영어 학습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글 해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국어 학습은 든든한 영어 실력의 밑바탕이 됩니다. 아이가 한글을 유창하게 읽는 것이 어렵다면 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Q : 글씨 쓰기를 싫어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아이가 흥미를 갖는 주제나 놀이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글씨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무조건 따라 쓰기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부터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입학할 학교, 가족이나 친구 이름을 활용하면 흥미를 갖게 됩니다.

Q : 읽기 연습을 할 때 어떤 글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A : 아이에게 어렵지 않은 짧고 쉬운 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거나 긴 글은 읽기 연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과 함께 글을 읽는 시간이 즐겁고 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가 관심을 갖는 제제의 글을 활용해 보세요. 이때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어려운 글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읽기 수준보다 약간 낮은 쉬운 글을 선택하여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해요

» 1학년 1학기에 집중 한글교육을 받은 후에도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https://k-basics.org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일상생활 속 한글을 찾아 보세요.

과자 봉지, 간판, 전단지 등 아이의 주변에 있는 글자들을 활용해서 한글과 친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물건에 이름을 써서 붙여주기, 만화 캐릭터의 이름 읽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한글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손 힘을 기르는 조작활동이 필요해요.

글씨 쓰기를 할 때 손에 너무 힘을 많이 주어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필 잡는 것을 어려워할 때는 먼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선 긋기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칠하기, 종이접기, 가위질하기 등의 손을 활용한 조작활동도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어 좋습니다.

그림책을 많이 읽어 주세요.

그림책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즐겁게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보호자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 속에서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도 깊어지고, 책 읽는 즐거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론 고학년(5~6학년)에게도 효과적이며 아이들의 읽기 유창성 발달을 넘어서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해력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듯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주세요.

글씨를 쓰기 전에 가로 선, 세로 선, 굽은 선과 같이 선 그리기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선을 따라 그리기부터 시작하여, 두 점을 선으로 잇는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글씨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올바른 자형으로 쓸 수 있도록 글씨 연습은 칸 공책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일한 책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게 해주세요.

아이가 유창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 유창성을 높이려면 동일한 글을 4~5회 반복해서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의 시범을 듣고 따라 읽기, 한 문장씩 번갈아 읽기, 혼자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수학 공부

수감각

• 저학년 시기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 중에는 수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감각은 수의 의미, 수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꾸준히 발달하는 역량입니다. 수감각이 부족한 학생은 수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이 부족하여 옳은 답에도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수학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특징

1. 세지 않고 보기만 해서는 작은 양조차도 직관적인 파악이 어려움
2. 구한 값이 정확한지 어림하는 능력이 부족함
3. 거꾸로 세는 것을 어려워함
4.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속도가 느림

1학년의 수학 공부

• 수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구체물을 활용하여 직접 조작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에서 9까지의 수를 차근차근 세기도 하고, 거꾸로 세기도 하면서 수의 위치와 크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 요소와 놀이 요소 등을 가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은 생활과 연계하여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학생이 수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놀이를 통해 즐겁게 공부해 보세요.

덧셈, 뺄셈 등 단순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구구단을 외우자'와 같은 간단한 놀이를 통해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합니다.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풀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수학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을 바로 잡고 원리를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린다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독서 습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독서 지도 방법은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읽기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문해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책과 부쩍 가까워진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Q&A

Q : 만화책을 보는 것도 괜찮은가요?

A : 무조건 제재하기보다는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가 있는 책만 골라서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바른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만화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만화로 된 책을 금지하기보다는 재미있는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어줌으로써 만화 이외의 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어떤 책을 골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A :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고르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함께 가서 아이 스스로 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의 추천자료 페이지에서는 매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추천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나 요일을 정합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문해력도 자연스럽게 신장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먼저 책에 관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 내용을 물어보는 사실적인 질문에서부터 아이의 사고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질문으로 질문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해요.

읽을 책을 스스로 고르는 과정에서 책에 관심을 갖고, 독서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됩니다.

진단부터 지원까지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 개인 맞춤형 기초학력 관리를 목표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다중 학습 안전망('수업 내 지원', '학교 안 지원', '학교 밖 지원')을 통해 교육결손을 줄이기 위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Q&A

Q : 1학년도 진단평가를 보나요?

A : 1학기 말(7월~9월)에 한글해득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1학년 1학기는 한글 해득을 위한 집중교육 기간이라 별도의 진단평가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2학기 말(12월)에는 2차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해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Q :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정서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 방과후 개별 학습 프로그램, 학습전략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 어려움, 난독증

흔히 낮은 지능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학습 장애입니다. 따라서 지능이 높은 아동 중에도 난독증은 발견됩니다. 난독증이 있는 아동은 단어 인지가 어려워 문자 해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잘 이해합니다.

연령대별 난독증 특성

- **초등학교 입학 전**
  - 말하기가 늦고, 혀 짧은 소리가 늦게까지 계속 됩니다.
  - 단어를 종종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긴 단어를 발음하기 어려워합니다.
  - 글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 이름을 쓰지 못하거나, 자음과 모음을 잘 모릅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 이중모음이나 받침이 있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 익숙한 단어 외에는 잘 읽지 못합니다.
  - 문자와 소리의 연결을 어려워합니다,
  - 보고 쓰기는 가능하지만, 받아쓰기는 어렵습니다.
  - 쓰기가 느리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 출처: 경기도교육청, 난독 극복할 수 있어요(홍강의 외, 소아정신의학 재인용)

Q&A

Q : 난독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나요?

A : 전문가의 조기 진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읽기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래와의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난독증 학생도 체계적인 발음 중심교육 및 해독 훈련 등을 지속해서 받으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읽기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 난독증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 : 경기도교육청은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학생을 지원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심층 진단검사 비용은 물론이고, 난독증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읽기 학습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난독증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빨리 알아차림과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교사온TV, 난독증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다양한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난독증 학생은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에 실수가 있더라도 야단치기보다는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심리적 지지가 난독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요

몸 튼튼 학생 건강검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산 등록이 빠진 것입니다.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학생 건강검사

- 성장기 학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교내로 찾아오는 출장 검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계획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초등학교 건강검사 항목**

항목	대상	검사 내용
신체 발달상황	전 학년	키, 몸무게(비만도)
건강조사	전 학년	생활 습관, 병력 등 문진표에 의한 조사
건강검진	1, 4학년	소변검사, 구강 검사, 시력, 청력 등

관련 사이트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예방접종 내역 조회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요.

우리는 자는 동안 피로를 회복합니다. 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신체 발달 및 뇌 발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저학년은 8~10시간, 고학년은 7~9시간 정도를 추천합니다.

»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요.

단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밥보다 간식을 더 좋아합니다. 에너지 보충을 위해 적정량의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밥 대신 간식을 먹는 것은 비만을 유발합니다. 아동기 비만은 이후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발달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튼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2007년부터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매년 1·4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통해 학부모님께 학생 개개인의 성격 및 특성에 맞는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A

Q : 검사 결과 관심군은 어떤 의미인가요?

A : 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심층 검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서·행동 특성과 관련된 문항에 체크한 내용이 검사도구의 기준점수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집중력 저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Q :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나오면 전문기관의 심층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선별검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연계되는 병·의원 등 전문기관의 심층검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검사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므로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정서적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https://www.smhrc.kr ☎ 02-6954-7247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위(Wee)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Wee)는 청소년들의 감성을 세심하게 살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뜻으로 우리들(We), 교육(Education), 감성(Emo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위(Wee) 프로젝트 기관

•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입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학교 내에는 위(Wee) 클래스, 학교 밖에는 위(Wee) 센터, 위(Wee) 스쿨 및 연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위(Wee)클래스	• 단위학교 내 상담실 설치·운영 • 개인상담/집단상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상담 관계 기관 의뢰·연계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내 학생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단·장기 위탁교육 기관	• 위(Wee) 스쿨 – 위기학생의 장기간 치료 및 교육을 위한 기숙형 장기 위탁교육기관 • 가정형 위(Wee) 스쿨 – 상담·교육·보호 기능의 기숙형 휘탁 대안 교육 기관 • 병원형 위(Wee) 스쿨 –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자해 및 자살시도)의 전문적 치료 및 교육 기능
연계 전문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청소년 헬프콜 1388 • 지역 병·의원 •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Q&A

Q : 위(Wee) 프로젝트 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이 드나요?

A : 대부분 무료입니다.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의 서비스는 경기도 내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위(Wee) 프로젝트 기관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이나 위(Wee) 클래스 담당자,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우리 동네의 가까운 기관을 검색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Wee) 기관찾기

Q :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위(Wee) 센터를 이용할 때 출결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사전에 학교에 알려 동의를 얻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위(Wee) 스쿨 및 가정형 위(Wee) 센터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의 동의 및 정식적인 의뢰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 랜선 위(Wee) 클래스

랜선 위(Wee) 클래스란?

상담실 방문의 두려움이나 감염병, 결석 등의 이유로 대면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1:1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 내용

위(Wee) 클래스와 같이 학교생활, 교우 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가정 혹은 학교 밖에서의 일들에 관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랜선 위클래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상담 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랜선 위클래스

랜선 위클래스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1) - 새학기 증후군

새학기 증후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종의 적응 장애를 말합니다. 학교라는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하게 되는 1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등교 거부나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새학기 증후군 테스트

동의하는 문항에 체크(✓)하세요.

- [ ] 짜증과 화를 자주 낸다.
- [ ] 학교에 관해 이야기하기 싫어한다.
- [ ]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
- [ ]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거나 줄었다.
- [ ] 하교 후 평소보다 피곤해한다.
- [ ]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자주 말한다.
- [ ] 등교 전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한다.
- [ ]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한다.

5개 이상 해당한다면 새학기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Q&A

Q :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꾀병인 걸까요?

A : 새학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새학기 증후군일 경우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저학년 학생일수록 이런 증상을 자주 보입니다. 단순 꾀병인 경우도 있지만 학기 초에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것을 권합니다.

Q : 새학기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건가요?

A : 학생에 따라 다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학습장애, ADHD 등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성향에 맞춘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라면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부모가 불안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적인 부담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입학 적응을 위한 TIP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이와 함께 앞으로 다닐 학교에서 운동장, 신나는 미끄럼틀 등을 구경하고,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헤어짐을 연습해 주세요.

엄마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 대해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해주고, 짧은 시간 부터 조금씩 헤어짐을 연습해 주세요.

친근한 환경에서부터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무작정 낯선 곳에서 연습하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친구, 친척, 이웃 등 낯익은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점차 시간을 늘려 연습해 보세요.

함께 있을 때 충분한 애정으로 안심시켜 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아이는 분리불안 증세를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늘려 주세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자립심을 키워 주세요.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2) - 아동 우울증

아이들의 우울증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에 증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아이들은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말 대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또 성인 우울증과 달리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일에 유독 집중합니다. 이런 이유로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들거나 TV, 휴대전화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의욕 저하, 짜증, 식욕 감퇴, 폭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 출처: Naver지식백과,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의 우리 아이 괜찮아요

예방 방법



꾸준히 운동하기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수영, 축구와 같이
아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하기

부모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생활에서
아이와 자주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3) - ADHD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동기에 많이 보이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로 발견됩니다.

ADHD 진단 테스트

동의하는 문항에 체크(✓)하세요.

- [ ]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해요.
- [ ] 과제 수행이나 놀이 중 자주 주의집중이 어려워요.
- [ ]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잦아요.
- [ ]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심부름,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수가 잦아요.
- [ ] 과제나 조직적인 활동 시 곤란을 자주 겪어요.
- [ ]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요.
- [ ]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려요.
- [ ]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져요.
- [ ]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려요.

6개 이상 해당할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출처: 경기도교육청TV, 주의력부족 ADHD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방법

경계 세우기

• 스스로 행동 조절이 힘든 아이들에게는 행동의 제한과 경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학년은 학습 태도뿐만 아니라 기본생활 습관도 익혀야 하는 시기라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1학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경계 목록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반복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생활 습관:** 식사 방법, 손 씻기, 잠자기, 옷 입기 등
❷ **정리 정돈:**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정리하기, 내 물건 개수 세어보기 등
❸ **학습 태도**
  • 의자에 바르게 앉기(놀이처럼 처음에는 1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기)
  •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는 습관 기르기
❹ **안전과 관련된 행동**
  • 갈등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화로 풀기
  •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위험한 물건(칼, 나무막대 등) 가지고 놀지 않기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숙제와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도록 도와주세요.

알림장을 적어오지 않거나, 전달 사항을 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중요한 사항을 앱이나 문자, 알림장 등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안내하는 학교가 많으니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준비물 바구니를 만들어 두고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가장 먼저 숙제와 준비물을 적도록 합니다. 필요한 것을 바구니에 담고 표시하며 스스로 책가방을 싸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주세요.

산만한 아이에게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여 주의를 끌고, 집중력이 사라지기 전에 짧은 문장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 어제 텔레비전을 많이 봤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을 거 같아. 방으로 들어갈까?
  ➔ 잘 시간이 지났어. 침대로 들어가.

운동이나 신체 놀이를 할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몸 속 에너지를 발산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에너지를 조절하는 능력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바탕이 되어 집중력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줄넘기, 축구,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도 좋고 규칙이 있는 운동을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달리기, 얼음 땡, 그림자 밟기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놀이도 좋습니다.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03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1학년 학부모로 거듭나기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참여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는 '학부모'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A

Q : 학부모는 엄마, 아빠만을 의미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부모가 해당되지만, 부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친권자, 후견인 등 학생의 보호자를 지칭합니다.

Q : 맞벌이 가정이라 교육참여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A : 교육참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학부모님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수업, 학교설명회 참석 등과 같은 직접 참여부터 설문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같은 간접 참여까지 모두 교육참여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학부모님께서 교육참여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교육참여 활동은 시작되며, 가정과 학교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교설명회

학교설명회는 가정과 학교가 소통하는 장으로서, 학교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를 위해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생활 규정, 건전한 학부모 교육참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학교설명회 후에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교사와의 간담회에 참여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설명회의 주요 내용

-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 정보
- 학교교육계획, 규정, 학교 소개
- 문의사항, 고충처리 방법
- 학년·학급별 운영 계획
- 연간 학교행사 및 운영 계획
- 학부모 특강(진로교육 등)
- 상급학교 진학 및 입시정보 안내

모든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부모회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로서,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학부모회의 기능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Q&A

Q : 학부모회에 가입하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나요?

A :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은 학부모회 회원이 됩니다.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학부모님은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이 되고, 그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 학부모회 임원이 됩니다.

※ 임원 구성: 회장, 부회장, 감사(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공적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협력해 주세요.

학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며, 학부모가 책임을 다할 때 자녀의 성적과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하는 마음, 공공선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학부모로서의 공적 권리이자 책임에 해당됩니다.

이때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며 교육주체로서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됨을 함께 배우는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을 기르고 인성교육 등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지원합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단위학교(학부모회), 학부모지원센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시·군청), 평생교육 학습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부모 역할 이해,
성장단계별
자녀교육 역량 강화 등

자녀교육 정보 제공

교육정책 이해,
건강한 학부모 교육참여 등

학부모 평생교육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이후 부모교육,
학부모 학습공동체 등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 경기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교육 운영, 학부모상담 운영, 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학부모지원센터



학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급식 등

Q&A

Q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권, 보고 요구권, 시정명령 신청권 등을 갖습니다.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자치기구로서 단위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상담

학부모상담은 담임선생님과 자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담할 좋은 기회입니다. 집에서의 자녀 모습과 학교에서의 자녀 모습은 의외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모습에 대해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장단점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학부모와 교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학부모상담 이렇게 해요

❶ 상담 협의 후 찾아가기

- 가급적 1주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시간을 정합니다. 1주일 동안 담임선생님은 아이를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수업 태도와 교우관계 등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님과 자녀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❷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하기

-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태도, 가정환경, 성장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교사, 학교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늦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자녀의 단점 수용하기

-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아이의 단점에 대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❹ 자녀의 장단점 전달하기

-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아이의 장점은 아이에게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심하게 다그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면 학교에서 아이를 지도할 때 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❺ 자주 상담하고 소통하기

- 학교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 알림장, 메모, 알림장 앱,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A

Q : 교원의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나요?

A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전화 및 교사가 공개한 전화번호, 애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하여 근무 시간 내 소통이 가능합니다.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II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1 함께 지키는 학습권과 교권 53

2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63



01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함께 지키는 학습권과 교권



1 행복한 학교, 학생의 다양한 학습권 보장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된 일반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지칭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특수학급이라고 지칭합니다. 특수학급을 부르는 이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예: 도움반, 사랑반, 학습지원실 등).

Q&A

Q : 통합교육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또래 학생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입장에서의 통합교육의 장점]

- 사회성 발달 및 적응력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와 함께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타인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다양한 역할 모델과의 상호작용: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접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역할 모델의 행동들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생활연령과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공평한 교육 기회: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장애 학생 입장에서의 통합교육의 장점]

- 다양성 존중과 포용력 향상: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생과 함께 학습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포용력과 공감 능력을 길러주며, 학교 밖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성 향상: 다양한 요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다 보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비장애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경험은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주세요.

도전행동(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도 좋으니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하는 첫걸음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과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여러 모습을 보았을 때 자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과 모습으로 자녀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가 있으니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는 불편한 감정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불편한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솔직하게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여러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여러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눕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살펴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강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자녀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자칫 이야기의 흐름이 학생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초점을 맞추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강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강점을 발견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Q&A

Q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장애인은 다른 개념인가요?

A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개념으로 서로 다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해당 장애가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 우리 아이가 학습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다가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을 선정하고 학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경우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과 같이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학생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및 방과후 운영 지원(아래 지원 중 택1)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 지원, 꿈이든카드 및 교내방과후수강권(1인단 월 15만원 이내), 특수교육 종일반
  2.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향상 및 독립적 학교생활 지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
  4.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지도사,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등
  5. 순회교육: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된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https://nise.go.kr/onmam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https://www.nise.go.kr/

다양성 이해교육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생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며 자긍심 함양 및 잠재적 재능 계발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 유형

-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편견과 차별 없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 가정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족다양성 이해 교육

- 다양한 문화의 요소를 가진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포용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가족다양성 이해 교육을 통해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문화교류 태도 및 인식,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학급, 중점학교, 예비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문화 학생의 어울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A

Q :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하나요?

A :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문화교육 지원

- 경기도다문화육지원센터 : https://more.goe.go.kr/da
- 다문화교육포털 : https://www.edu4mc.or.kr
- 다누리배움터(다누리) : https://www.danurischool.kr

2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활동 침해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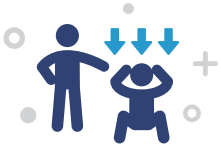
-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Q&A

Q :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A : 교원의 교육활동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침해하는 행위는 교실 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학생 문제 행동 3단계(예시)

단계	설명
1단계 경미한 문제행동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지만 교육활동을 중단할 정도는 아닌 수준의 활동 ※ (예시) 산만한 수업태도, 잡담, 소음, 시간 어기기 등
2단계 심각한 문제행동	• 학습 분위기를 상습적으로 저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불가하게 하는 수준의 행동 ※ (예시) 교사의 지시 불이행,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교실 내 자리이탈, 핸드폰 무단 사용, 학습활동 거부 ※ 경미한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행동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음
3단계 매우 심각한 문제행동	•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즉시분리가 필요한 수준의 행동 ※ (예시) 신체폭력, 심각한 언어폭력, 성폭력, 흉기 소지 등의 위해, 교실이나 학교 이탈, 이탈 후 배회, 그 외 극단적으로 위급한 상황 등

※ 출처: 현장교원 정책TF 연구보고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 분야와 방법 및 체벌 금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학생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
학교 규칙	고시에서 위임한 구체사항 등

Q&A

Q : 교원의 생활지도와 학생인권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까닭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합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위해·위험요인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Q : 학생생활지도 방식은 학교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가요?

A : 학생생활지도 방식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칙을 제정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마다 제정된 학칙에 따라 상담 절차와 방식, 훈육 및 훈계의 세부 규정(시행 요건, 장소, 시간, 학습지원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 상담은 보호자와 교원 서로 간에 요청할 수 있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교육적 필요로 보호자와 교원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방식으로서의 상담은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단, 상담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어야 하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외의 상담 등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방식

•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조언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권고

상담



• 학생을 돕기 위한 소통
• 상담 예약 및 사전 협의 필요

주의



• 학교안전 및 질서유지 저해 우려 시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훈육



• 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한 지시, 제지(물리적 제지 포함), 분리,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

훈계



• 권리, 의무,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과제 부여(대안 행동, 성찰문, 훼손 시설 및 물품 원상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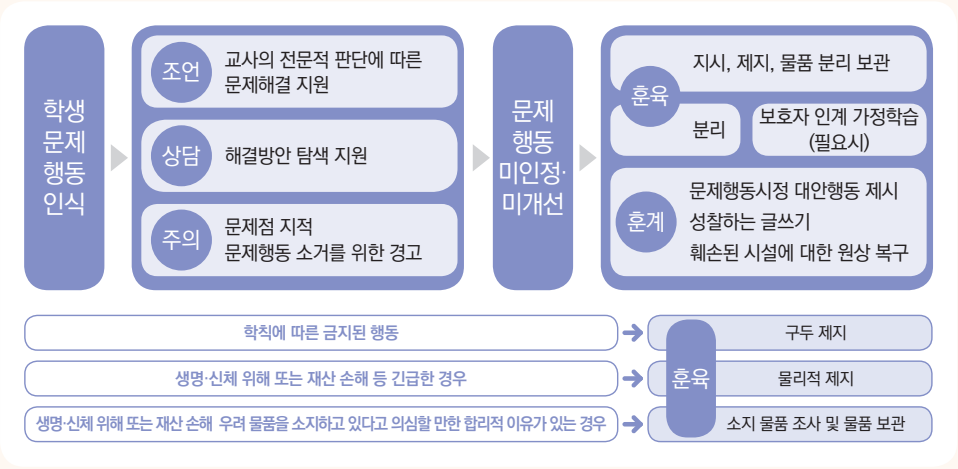
보상



• 학생 동기부여를 위한 칭찬과 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절차

• 교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Q&A

Q : 학생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나요?

A : 상황에 따라 교원이 판단한 학생생활지도 방식이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

훈육은 교육활동 상황에서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Q :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경우 학부모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선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02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1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A

Q :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A : 학교폭력의 기준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모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 출처: 에듀넷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간단하게 구분하는 학교폭력 행위

돈을 빌린 것과 갈취의 차이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언제든 갚으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린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갈취 즉 뺏는 것입니다.

장난과 폭력의 차이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우면 폭력입니다.

친구의 SNS에 장난으로 '나쁜 X, 못된 X'라고 몇 자 적은 경우

언어폭력에 해당되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문제 상황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법적 개념으로 구분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보면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가해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부모로서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Q&A

Q :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먼저 상황을 확인하여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학부모의 올바른 대응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둡니다.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사안을 접수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할 경우

1. 가해 학생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2. 피해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 동안' 일어난 일인지 자녀에게 물어서 파악합니다.
3.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건교사나 의사에게 자문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주변 친구의 증언과 물증(사진, 녹음 등), 다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합니다.
5.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합니다.
6.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의 심의 기간 동안 아이를 탓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보복이나 도피의 방법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를 했다고 인지할 경우

1.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았을 때, 모른 척하거나 감싸면 안 됩니다.
2. 객관적으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떠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왜 그랬는지의 상황과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합니다.
4.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을 회피하거나 정당화하는 행동 또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마음가짐은 문제 해결에 독이 됩니다.

학교 내 신고가 두렵다면(교외 신고 방법)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고·상담
- 안전Dream: https://www.safe182.go.kr
-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에서 안내받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학교폭력 예방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학부모가 학교생활이나 친구들에 관해 자주 물어볼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A

Q :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A :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처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잣대인 법적인 처벌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여러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꾸준히 지도하셔야 합니다.

Q : 저학년의 경우, 어느 선까지 학교폭력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A :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먼저 상담합니다.

전화하기에 앞서 부모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소한 장난이 습관이 되어 사사건건 괴롭힌다고 느껴질 때, 동일 이름의 친구가 자주 언급되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될 때, 그리고 여러 명의 친구가 한꺼번에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판단되실 때는 학교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부모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좋은 가족·친구 관계는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
- 자녀는 평소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에게 어려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 부모님의 허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좋은 친구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 모든 친구를 소중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학교 내 신고가 두렵다면(교외 신고 방법)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https://www.stopbullying.re.kr(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https://doran.edunet.net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성폭력 발생 시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분리되며 피해 학생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Q&A

Q : 실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 성폭력 발생 직후의 대응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피해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 지원센터에 신고합니다. 또한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합니다.

1. 아이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몸을 씻지 않은 채 병원진단을 받습니다.
2.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녹음,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3. 학교에 연락한 후, 학교의 조치에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합니다.
4.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징후 및 후유증



아동(학령기)

-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눈치를 많이 보는 행동
- 악몽 등의 수면장애를 겪음
-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공격적, 반항적인 행동
- 주의집중 곤란 및 학업 부진, 또래 관계의 곤란
- 연령에 맞지 않는 성에 관한 지식
- 강박적인 행동(잦은 양치질, 손 씻기, 속옷 갈아입기 등)
- 갑자기 씻기 싫어하거나 옷 갈아입기를 싫어함

※ 출처: 경기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학교 내 신고가 두렵다면(교외 신고 방법)

- 성폭력 신고: 117
- 학교폭력(성폭력)상담: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1366
-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https://www.safe182.go.kr

성폭력 예방

성인지 감수성은 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❶ 자기 경계를 인지하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지도합니다.



❷ 동의를 구해야 할 상황을 인지하도록 지도합니다.



❸ 내 몸은 나의 것이므로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킵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성인지교육교재

Q&A

Q : 1학년 아이들끼리의 성적인 장난과 성폭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A : 성적인 장난도 성폭력이며 아래의 초등학교 사례들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❶ 화장실에서 호기심으로 B군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A군
❷ 평소 친한 사이였던 B양에게 억지로 볼뽀뽀를 한 A양
❸ B군의 바지를 내리는 척하려다가 바지를 내려 버린 A군
❹ 웃옷을 벗어 맨몸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B양

1학년은 발달단계 상, 신체를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받을 영향을 생각하여 조심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법

- 성적인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려주세요.
- 친구가 성적인 행동을 하려 하면 NO라고 단호하게 말하도록 하세요. 상대방의 침묵을 '예'로 혼동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협박이나 강요를 당할 때는 겁먹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알려주세요.
- 자녀가 건전한 성 가치관과 자신의 신체적 성장에 대해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성평등 교육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 젠더온: https://genderon.kigepe.or.kr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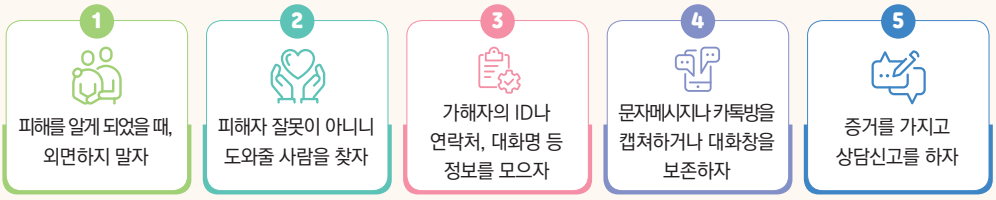
Q&A

Q :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A :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지도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불법 촬영, 사진 합성,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공유, 성적 괴롭힘, 협박 등을 핸드폰이나 인터넷 상에서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순서



※ 출처: 한국여성재단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활용 워크북

아동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1. 다른 친구의 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합성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나와 다른 친구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3.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4.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이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3.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디지털 성폭력 신고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2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Q&A

Q : 한두 번 때린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A : 일회성의 체벌이라도 고의적이라면 아동학대입니다.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은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현관문 밖에 세워두는 것 또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이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한 경우, 체크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예	아니오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 출처: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은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며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된다면 이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Q&A

Q :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시 비밀전학이 가능할까요?

A : 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전학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되는 경우,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제3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3(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훈육할 때, 기억할 3가지

- 어떠한 경우라도 때리지 않습니다. 체벌은 훈육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심호흡과 함께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와 잠깐 눈을 맞춰봅니다.
- 사랑스런 눈빛과 함께 아이에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1 기본 전제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실천 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실천 방법

- **자녀 알기** –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봐 주세요.
-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 **관점 바꾸기** –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 **일관성 유지하기**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 **함께 키우기** –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교사직, 의료직, 공무원 직군 등)은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1. **신 체 학 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정 서 학 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3. **성　학　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신고

- 아동학대(가정폭력)신고: 112
- 보건복지콜 센터: 129
- 아동지킴콜: 112 어플(아동학대 정보 검색과 신고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3 안전한 학교생활을 해요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교육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학생들의 발달 과정과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체험중심 활동으로 교육합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입니다. 학생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7대 영역에 대한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2025학년도 기준, 연간 51시간 운영, 각 영역별로 학기당 1~3회 이상 안전교육을 편성·운영함)

Q&A

Q :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나요?

A : 네, 아침활동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급에서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이란?

짧은 시간,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발된 경기도교육청의 안전교육입니다.



나 나를 지키고

침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입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24.or.kr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https://kasem.safekorea.go.kr
- 행전안전부 안전한TV: https://www.safetv.go.kr
-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https://www.goese.kr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에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학교안전공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었을 때 학교안전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A

Q : 학교 수업 시간에 활동하다가 다쳤어요.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과 중복이 가능할까요?

A : 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는 별개로 공제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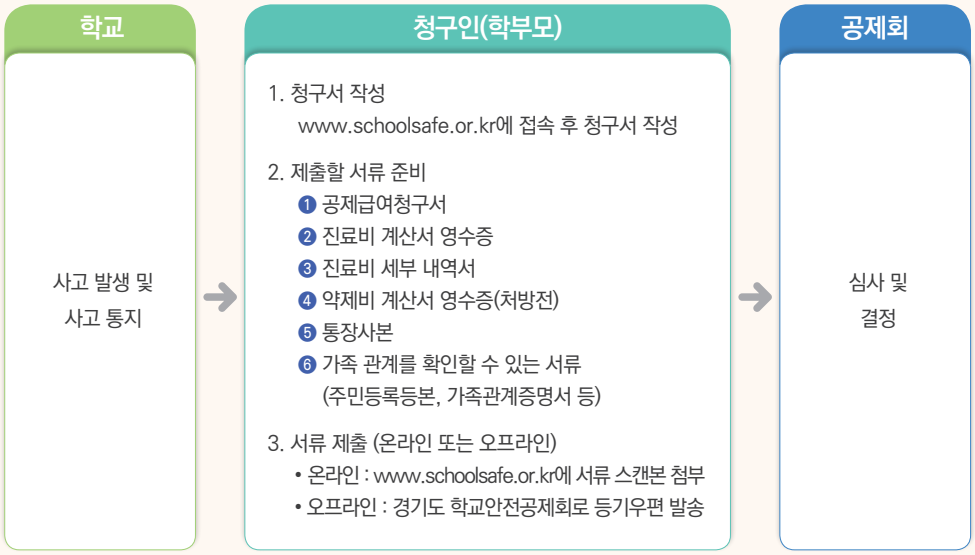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의 경우
-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 진료 및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자동차 사고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경우
-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1
- 전화번호: 1588-5255
- 팩스번호: 031-258-2127
- 홈페이지: https://www.ggssia.or.kr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절차



- 공제 청구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비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를 처방했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공제회에서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에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참고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학교를 만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학교참여 이해하기

경기교사온TV, 난독증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경기도교육청,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2023 학교급식 기본방향

경기도교육청, 2023 초등돌봄교실 실무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 난독, 극복할 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연계 사례와 질문으로 이해하는 학생인권

경기도교육청, 통합교육 톺아보기(초등)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참여 같이 가요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부모 꿈꾸는 1학년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초등1, 2학년)

교육부,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 초등학교(1~3학년)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 입학 두근두근 설렘

아이누리 누리집, 잘 시작하고 스스로 끝내는 미디어 습관 만들기

어린이급식관리자원센터, 식품알레르기의 올바른 이해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매뉴얼 제7권 초등학생 부모

여성가족부, 성인지 교육교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22 학부모 교육모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학생 통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교육정상화법 홍보자료

한국여성재단,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활용 워크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현장교원 정책TF팀 연구보고서

7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총괄

구순이(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장)

신성희(경기도교육청 학부모역량지원담당 사무관)

기획

허선영(경기도교육청 학부모역량지원담당 장학사)

개발위원

이희진(배영초등학교 교감)

고재신(옥빛초등학교 교사)

정다애(칠보초등학교 교사)

차인숙(남양주신촌초등학교 교사)

검수위원

박성국(다산새봄초등학교 교감)

김상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발 행 일 2024.12.

발 행 처 경기도교육청

디자인 및 인쇄처 디자인펌킨(031-893-8315)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